

세계 대도시 남성들의 데님패션 비교연구

김찬주[†] · 노미경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

Comparison of Mens' Denim Fashion in Eastern and Western Cities

Chanju Kim[†] · Mikyung Ro

Dept. of Fashion & Industry, University of Incheon
(2006. 5. 12. 접수)

Abstract

The denim fashion is a style of clothing showing trends towards globalization in that it is most favored and most frequently purchased and worn by youngsters throughout the world. However, it differs from region to region in its shapes, colors, silhouettes and coordination, reflecting a feature of regionalism. Male denim fashion data were collected from large cities of the East and the West for an analysis in terms of design and coordination. It was found that a common point originated from the features of the clothing itself as well as from a common culture shared among those of similar ages while differences came from various factors such as aesthetic sentiments and lifestyle of each ethnic group, willingness to accept the fashion trends, and the ways of expressing oneself by means of clothing and their attitude towards clothing. It was noteworthy that the denim fashion in Europe and America, Beijing and Seoul differed largely owing to their different tastes for expressing themselves. A comparison study of the regional denim styles may lead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a worldwide phenomenon of the common fashion trends and regional differences in aesthetic appeal and the fashion preference.

Key words: Denim fashion, Street fashion, Styling, Coordination; 데님패션, 스트리트 패션, 스타일링, 코디네이션

I. 서 론

현대사회에서 패션은 글로벌 패션 트렌드의 영향을 받아 세계적으로 동일한 스타일이 유행하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문화의 영향으로 지역별 독특한 경향을 보이는 지역화(localization)의 2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데님스타일은 패션의 이러한 이중적 경향을 알아볼 수 있는 매우 좋은 예가 된다. 데님은 세계 공통으로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많이 입으며, 구입빈도가 높은 의류품목이라는 점

에서 세계화의 경향을 보이거나, 동시에 같은 데님스타일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형태와 색상, 실루엣, 코디네이션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는 지역화의 경향을 보인다. 지역별 데님스타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지역의 차이에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패션 트렌드와 함께 지역별 미의식과 패션 기호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 말 리바이스(Levis)에 의해 작업복의 소재로 이용되기 시작한 이래 데님은 개척정신을 나타내는 웨스턴문화를 대표하면서 복장의 캐주얼화를 선도하였고, 그 후 하위문화가 부상하자 청년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상징하는 의복으로 착용되었으며, 스포츠의 일반화와 디자이너들의 참여로 인해 기능성과

[†]Corresponding author
E-mail: cjkim@incheon.ac.kr

고급화가 더해지는 등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변화해왔다. 최근 데님은 패션 트렌드와 접목되면서 어떤 종류의 의복과 액세서리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아이템으로 인식되어 캐주얼 의류 중 가장 수요가 크고, 앞으로도 성장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의 공통적으로 데님의류 전문브랜드들이 등장하여 데님의 패션화와 고급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들은 점차 전 세계적으로 영향범위를 넓히고 있어 브랜드차별화를 위해 이미지와 디자인에 힘쓰고 있다.

이제까지 데님의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소재와 구성중심이었고 근래 소비행동과 미의식에 관한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으나 디자인과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특히 데님의류는 사계절 착용하나 계절에 따라 주로 입는 품목, 색채, 실루엣, 디테일, 코디네이션이 달라지므로 계절별 차이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젊은이들의 세계 공통패션인 데님스타일의 지역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데님의류 상품기획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내용은 동양과 서양 대도시 남성들의 데님의류를 입는 모습을 자료 수집하여 내용 분석방법을 이용해 디자인 요소와 코디네이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도시선정은 동양은 서울과 북경, 서양은 런던, 파리, 밀라노, 뉴욕을 포함하였다. 동, 서양 대도시 남성들이 데님스타일 비교를 위해 첫 번째 계절별로 많이 입는 데님의류의 품목, 두 번째 데님하의와 많이 착용하는 상의의 품목, 세 번째 데님하의의 디자인 요소-색채, 실루엣, 디테일, 네 번째 데님하의와 착용하는 상의의 디자인 요소 등 4개의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남성 데님패션 스타일의 현황

19세기 말에 노동자의 의복으로 시작된 데님의류는 20세기의 각 시대마다 사회에 저항하는 젊은이들의 패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 발전하였다. 1990년대에 데님패션은 그 동안 다양한 계층에서 캐주얼로 자리 잡은 데에서 다시 청년, 하위문화를 상징하는 의복으로 등장하였다. 아메리칸 스타일의 정통데님과 패션성이 돋보이는 유럽 데님, 랩 음악을 애호하는 젊은이들로부터 확산된 힙합 스타일로 이어졌다. 2000년대

에 들어와서 데님은 패션 트렌드와 접목하면서 전성시대를 새롭게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데님은 주로 캐주얼 이미지로 한정되어왔으나 베이직(basic), 섹시(sexy), 캐릭터(character) 등 연출하는 스타일에 따라 여러 이미지로 변신이 가능하게 되면서, 데님제품 자체의 영역이 넓어졌다.

특히 현대 남성들이 사회적 가치관에 따른 변화로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게을리 하지 않고, 그들만의 이미지를 추구하기 위해 유행을 쫓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과거 남성들과 달리 직업에 대한 개념의 변화, 여행, 스포츠 활동 등을 비롯한 여가시간의 적극적인 활용, 패션에 대한 취향을 다양하고 감각적으로 바꾸게 되었다. 우지영(2005)에 따르면 남성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킨 요인으로서 메트로섹슈얼(metrosexual)을 한 예로 들고 있다. 고대협(2005)에 따르면 메트로섹슈얼은 Metropolis와 Sexual의 합성어로서 1994년 일간지 <인디펜던트>지에서 마크 심슨(Mark Simpson)이 켈빈 클라인 속옷 광고에 등장하는 잘생긴 남자가 아닌 아름다운 남자를 가리켜 썼던 말이다. 이 스타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캐주얼 재킷에 감각적인 스트라이프, 꽃무늬 셔츠를 입고 데님팬츠, 그리고 남성적인 가죽구두나 스니커즈를 착용하고 몸에 잘 맞는 실루엣에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색상으로 인식된 붉은색 계열을 비롯한 다양한 색조를 착용한다.

세계의 데님트렌드에 맞추어 국내의 데님의류도 다양한 이미지로 연출되고 있다. 김미수, 이경희(1995)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데님의류는 1980년대 초에 해외 라이선스 브랜드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변화를 갖게 되었다. 즉 고가의 디자이너 캐릭터 진의 도입으로 국내 시장에서 데님은 청년문화 상징의 단계를 거쳐 고가의 패션 상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최현주(2003)는 국내 캐주얼 시장의 확대로 그 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고가와 함께 중·저가 등의 다양한 데님브랜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스타들의 영향이 크다. 메트로섹슈얼의 대표적 인물인 데이비드 베컴, 그리고 브래드 피트 등의 영화배우, 미국 힙합 가수 등의 외국 스타들은 물론 국내의 남성 스타들도 각종 TV 프로그램이나 콘서트, 파티, 시사회 등에 청바지와 함께 화려한 색상의 꽃문양 셔츠나 여러 형태의 재킷을 착용함으로써 청바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 이들 유명 스타들이 많이 입는 형태는 정통 청바지 형태와 함께, 여성과 마찬가지로 밀위가

짧아 다리가 길어 보이고, 섹시해 보이는, 다양한 브랜드의 고급 청바지들이 국내에 들어와 인기리에 판매되면서, 데넴패션 연출이 국내의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도 하나의 패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중국의 상황은 WTO 가입 이후 외래문화가 들어오고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수집이 자유로워졌으며, 의류소비 형태는 보다 다양하고 개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패션은 대중매체(TV, 신문, 라디오, 잡지)를 통해 과거의 보수적이고 실용적인 단조로운 스타일 위주로 전개되던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가진 대중들에 의해 개성적으로 창조되고 있다. 그리고 최경희(2004)에 의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활동성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캐주얼화가 패션의 중심경향으로 자리 잡았으며 여러 연령계층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성장세가 빠른 영 캐주얼(young casual) 시장의 타겟이며, 청춘세대로 불리는 2억의 인구분포를 갖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사이의 젊은이들의 사고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중국 패션의 변화를 주도할 전망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국의 젊은이들은 교육수준의 발전과 개혁개방의 심화로 경제, 사회생활과 전통 관념의 변화를 이루는 주체세력이 되고 있으며, 이들의 사고와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라 의복욕구 또한 변화하여 집단의 정체감 표현 대신 개인의 만족이나 개성표현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즐겨 입는 데넴의류를 착용한 중국 젊은이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 데넴패션에 관한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젊은이들의 일반 패션 상황과 함께 본 연구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근거 자료로 연구하였다.

2. 데넴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데넴 관련 논문들은 주로 소재 특성에 관한 연구들-김경애(2000), 김경애 외(2003), 이미지 외(2001), 문화사적, 미학적 특성 연구들-이민경, 한명숙(2002), 이효진(2004), 청바지 광고의 표현양식-김선희, 임숙자(1996), 김미영, 이충연(2000) 등과 전경숙, 김재욱(1996), 이명희(1997), 이정숙, 성수광(2004), 박혜정 외(2004) 등의 데넴의류 착용태도 및 구매행동에 관련된 논문들이다. 본 연구 주제와 관련 있는 연구결과들 중에서 이정숙, 성수광(2004)은 청

바지에 대한 이미지를 남녀 모두 남성답다>섹시하다>유니섹스하다>활동적이다>짧다>편안하다는 순서로 보았고, 착용하는 청바지의 형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일자형 바지를 가장 많이 입고 있으나, 그 다음으로는 남학생이 통이 넓은 배기형을, 그리고 여학생은 벨 보텀을 많이 착용하였다고 밝혔다. 박혜정 외(2004)에 의하면 청바지 구입 시 선택요인으로서 남녀 모두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다'와 '유행에 따라 선택 한다'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대학생의 청바지 쇼핑성향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청바지를 구매할 때 제품의 디자인과 개성표현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밝혔다. 그리고 김미영, 이충연(2000)의 진 의류광고에 나타난 미의식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진 의류는 1990년 후반에 이르러 기존의 '짧음', '활동성' 외에 '섹시함'을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개성표현'과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였다. 이민경, 한명숙(2002)은 특히 최근 페미니즘이 패션의 메가 트렌드화 하면서 데넴패션에도 로트릭한 표현, 탈고정적 성 표현, 해체적 표현양식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을 종합하면 데넴패션이 특정시대 집단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역할에서 점차 개인화, 개성화의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청바지 구매 시 디자인을 중요시하고, 개성표현과 유행을 함께 고려한다는 사실은 데넴의류가 패션화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와 함께 전경숙, 김재욱(1996)은 한국과 멕시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청바지 구매행동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특성은 문화권에 따라 분명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청바지의 품질평가, 가치평가 및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도 있어 데넴패션에도 비교문화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데넴(또는 진즈)으로 만들어진 의복 품목들을 일컬을 때는 데넴의류라고 하였으며, 데넴을 전부 또는 하나 이상 착용하여 다른 품목들과 조합하여 입은 차림을 의미할 때는 코디네이션에 의미를 두어 데넴패션이라 칭하였다.

자료수집은 거리 사진촬영과 잡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루어졌다. 동양의 도시로 선정된 서울과 북경의 자료들은 사진촬영을 통해 수집하였고, 서양 도시

들의 자료는 사진촬영에 무리가 있어 인터넷 검색과 잡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사진촬영은 대학에서 패션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2004년 6월에서 2005년 5월 까지 1년 동안 서울과 북경의 중심거리에서 진행하였다. 촬영장소는 20대 젊은이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번화가 거리, 즉 서울은 명동, 압구정, 강남역 부근이, 북경은 동방신천지백화점 앞 왕후징 거리, 시단백화점 앞거리가 선정되었으며, 특색 있는 데님패션을 보인 젊은이를 중심으로 촬영하였다. 각 지역은 주위 환경과 모이는 사람의 특성이 다소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쇼핑과 오락, 문화의 거리라는 특성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도시 젊은이들의 데님패션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촬영시기는 연구인원의 한계로 인해 각 계절별로 중간 달(7월, 10월, 1월, 4월)의 첫째와 셋째 주말에 촬영하였으며 전신착장 모습만을 자료로 사용하였다. 서울은 301매, 북경은 175매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서양 도시 남성들의 데님패션은 세계 패션의 중심지로 알려진 런던, 파리, 밀라노, 뉴욕을 촬영한 패션 정보지 'VIEW'에 수록된 스트리트 패션과 서울패션디자인센터에서 발간한 '해외 남성 스트리트 패션'(2004년) 자료집, 사이트(www.sfdc.seoul.kr)에 정기적으로 게재되는 남성 스트리트 패션 사진들을 검색하여 220매를 수집하였다. 동·서양을 합쳐 총 696매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자료분석은 연구문제를 기준으로 계절별로 데님의 류 품목별 착용빈도와 데님하의와 착용하는 상의의 품목별 착용빈도, 데님하의의 디자인 요소 분석, 데님하의와 착용하는 상의의 디자인 요소 분석의 순으로 진행하였고,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각 유목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데님하의의 형태분류를 위해 실루엣은 전체적인 맞음새를 기준으로 엉덩이와 다리에 꼭 맞는 피티드(fitted), 무릎아래가 넓어지는 플레어(flare), 전체적으로 헐렁한 루스

(loose), 적당히 맞고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스트레이트(straight)의 4가지로 설정하였다. 색상은 데님의 고유한 푸른 색상을 기본색(basic)으로 보고, 이보다 명도가 낮으면 어두운 색(dark), 명도가 높으면 밝은 색(light), 그리고 부분적으로 탈색하여 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까지 나타나는 부분발색의 4종류로 분류하였다. 데님과 코디네이션 하는 상의의 디자인 요소분류를 위해 색상은 면색색상환의 10가지 기본 색상을 기준으로 하였고, 색조는 PCCS에서 정한 11가지 색조들을 기준으로 사용하되 인접한 2-3개의 영역을 하나로 묶어 Pale & Light(P&Lt), Bright & Vivid(B&V), Deep & Dark(Dp&Dk), Soft & Dull(Sf&DI), Grayish의 5가지 색조영역을 사용하였으며, 실루엣은 전체적인 맞음새를 기준으로 허리선이 드러나고, 상체가 꼭 맞는 피티드 실루엣과 허리선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여유 있는 루스 실루엣으로 설정하였다.

IV. 결과분석

동양과 서양의 데님패션을 비교하는 데 있어 서양의 여러 도시들은 데님의류가 소개된 시기와 착용양상이 유사하여 하나로 묶어 정리하였고, 서울과 중국은 같은 동양이나 데님의류가 소개된 시기와 착용양상에서 차이가 있어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계절은 상품기획시의 계절 기준이 S/S와 F/W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S/S와 F/W로 나누었다.

1. 데님의류 품목별 착용빈도 비교

서울·북경과 서양 남성들의 데님의류 품목별 착용빈도를 S/S와 F/W로 나누어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1) S/S

서양과 서울 북경 남성들 모두 데님소재의 의복으로는 팬츠로 착용한 비율이 압도적이었으며, 서울도

<표 1> 데님의 품목별 착용빈도 비교

(단위: 명(%))

품목	S/S			F/W			합 계		
	서 양	서 울	북 경	서 양	서 울	북 경	서 양	서 울	북 경
팬 츠	125(99.2)	108(89.3)	70(95.9)	92(97.9)	152(84.4)	102(100)	217(98.6)	260(86.4)	172(98.3)
재킷/점퍼/베스트	1(0.8)	13(10.7)	3(4.1)	2(2.1)	28(15.6)		3(1.4)	41(13.6)	3(1.7)
합 계	126	121	73	94	180	102	220	301	175

팬츠가 가장 많았으나, 다른 곳에 비해서 재킷과 베스트의 착용이 많았다.

2) F/W

F/W에도 마찬가지로 세 곳 모두 데님팬츠를 가장 많이 착용하였다. 특히 서울은 S/S와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 비해 데님재킷, 베스트의 착용이 많았고, 특히 데님을 상하의로 착용한 경우도 간혹 있었다.

계절을 종합하면 조사한 도시에서 모두 데님팬츠의 착용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은 다른 도시들에 비해 데님재킷과 베스트의 착용이 많았다. 조사결과 그 외의 다른 품목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표의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2. 데님패션의 코디네이션 품목별 착용빈도 비교

남성들에게 데님의류가 <표 1>에서 주로 팬츠로 입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코디네이션 해서 입는 상의를 품목별로 나누어 착용빈도를 살펴보았다(표 2).

1) S/S

서양 남성들은 티셔츠, 그 다음으로 셔츠가 많아서 계절의 특성상 데님팬츠에 여름에는 간편한 티셔츠와 봄에는 셔츠 차림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트레이닝 점퍼, 재킷 등이 있었으나 그 양은 많지 않았고, 특히 스웨터/가디건은 거의 없었다. 서울 역시 티셔츠가 가장 많았으나, 서양과 달리 점퍼/베스트도 많았다. 여름에는 서울 역시 간편한 티셔츠를 데님팬츠와 착용하였으나, 봄에는 셔츠보다는 점퍼/베스트를 더 많이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착용한 상의들도 서양과 유사하였다. 경기도 티셔츠가 가장 많았으며, 셔츠와 점퍼/베스트도 많이 나타났다. 계절의 특성상 모두 데님팬츠와 착용하는 상의의 종류는 티셔츠와 셔츠, 점퍼/베스트의 간편한 차림이 가장 많았다. 여름에는 모두 티셔츠가 가장 많았으나, 봄에는 셔츠와 점퍼/베스트의 순서가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2)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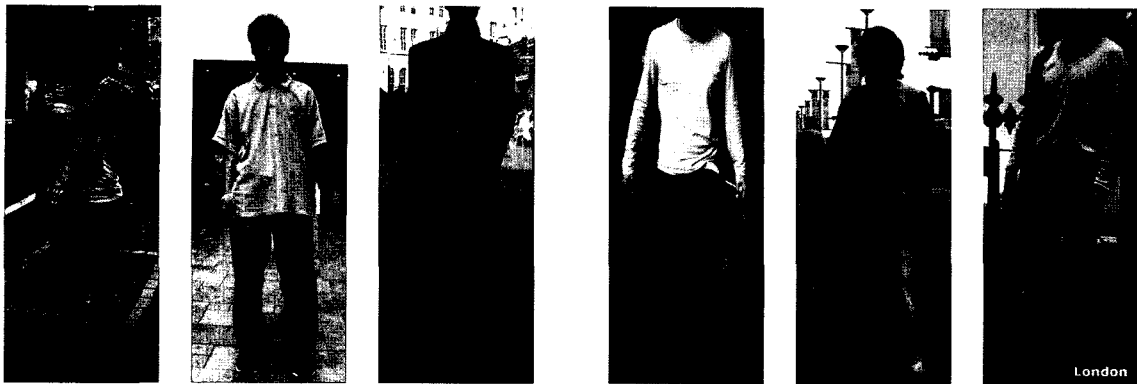
서양은 재킷이 가장 많았으며, 티셔츠가 두 번째로 많았는데, 그 이유는 데님팬츠에 티셔츠와 재킷을 착용한 경우가 많아서 계절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티셔츠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유행 수용의 결과로 트레이닝 점퍼가 많았으며, 점퍼/베스트와 코트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도 재킷이 가장 많았으나, 점퍼/베스트도 비슷한 양으로 나타났다. 서울도 데님팬츠에 티셔츠와 재킷을 착용한 경우가 많았고, 서양에 비해서 점퍼/베스트의 양은 많았으나, 유행을 따른 트레이닝 점퍼는 적었다. 그 외에 패딩 점퍼, 스웨터 등 다양한 종류의 의류를 착용하였다. 그러나 북경은 서양, 서울과 달리 패딩 점퍼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점퍼/베스트, 그 다음으로 트레이닝 점퍼가 많아서 점퍼 종류를 데님팬츠와 가장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2, 3).

서양과 서울은 데님팬츠에 티셔츠와 재킷을 착용한 경우가 가장 많아서, 두 도시는 데님팬츠를 좀 더 폭 넓은 방법으로 코디네이션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북경은 데님팬츠에 점퍼 종류를 가장 많이 착용함으로써 코디네이션 활용방법이 일정 품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데님과 착용하는 상의의 품목별 착용빈도

(단위: 명(%))

품 목	계 절	S/S			F/W		
		서 양	서 울	북 경	서 양	서 울	북 경
티셔츠		105(65.2)	65(53.7)	51(58.0)	31(23.9)	19(11.0)	7(7.0)
셔 츠		35(21.7)	15(12.4)	15(17.1)	9(6.9)	3(1.8)	1(1.0)
재 키 트		4(2.5)	5(4.1)	4(4.6)	35(27.0)	49(28.5)	3(3.0)
점퍼/베스트		11(6.8)	25(20.7)	14(15.9)	17(13.1)	45(26.2)	27(27.0)
트레이닝 점퍼		4(2.5)	9(7.4)	1(1.1)	20(15.4)	17(9.9)	12(12.0)
스웨터, 가디건		2(1.3)	2(1.7)	1(1.1)	8(6.1)	16(9.3)	9(9.0)
코트/만코트				2(2.2)	10(7.6)	5(2.9)	5(5.0)
패딩 점퍼						18(10.4)	36(36.0)
합 계		161	121	88	130	172	100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6>

<그림 1> 2004, 7. 서울. 티셔츠와 데님팬츠 착용.
 <그림 2> 2004, 7. 북경. 티셔츠와 데님팬츠 착용.
 <그림 3> 2004, 10. 서양. 재킷과 데님팬츠 착용.

<그림 4> 2005, 4. 서울. 기본 데님색 팬츠 착용.
 <그림 5> 2004, 7. 북경. 밝은 발색 데님팬츠 착용.
 <그림 6> 2004, 10. 서양. 기본 데님색 팬츠 착용.

3. 계절별 데님하의의 디자인 요소 분석

서울·북경과 서양 남성들이 많이 착용하는 팬츠는 계절에 따라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알기위해 디자인 요소를 색상, 실루엣, 디테일로 나누어 착용빈도를 비교하였다(표 3).

1) S/S

색상에서 서양은 기본 데님색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어두운(dark) 데님색이 많았다. 서울은 어두운 데님색이 가장 많았으나, 기본 데님색도 거의 비

슷하게 나타났다. 북경 역시 기본 데님색이 가장 많았으나, 다른 곳에서는 매우 적었던 밝은(light) 데님색이 많았다(그림 4, 5, 6).

'실루엣에서 서양은 일자형(straight)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넉넉한(loose) 실루엣이었으며, 그 외의 실루엣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서울 역시 일자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넉넉한 실루엣이었다. 이렇게 볼 때 데님팬츠 실루엣의 종류는 같았으나 서울이 좀 더 넉넉한 실루엣을 많이 착용하였다. 북경도 일자형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넉넉한 실루엣이어서 실루엣의 종류는 두 도시와 동일했으나, 넉넉한 실루엣의 양

<표 3> 데님하의의 디자인 요소 분석

(단위: 명(%))

요 소	계 절	S/S			F/W		
		서 양	서 울	북 경	서 양	서 울	북 경
색 상	Basic	61(40.0)	46(42.6)	33(47.1)	35(38.0)	57(37.3)	32(31.3)
	Light	13(10.4)	9(8.3)	13(18.6)	9(9.7)	3(9.7)	17(16.7)
	Dark	43(34.2)	48(44.4)	23(32.9)	45(48.9)	86(56.3)	51(50.0)
	부분발색	8(6.4)	5(4.6)	1(1.4)	3(3.2)	7(4.5)	2(2.0)
실루엣	Straight	99(79.0)	77(71.3)	40(57.1)	78(84.7)	114(74.5)	76(74.5)
	Fit	1(0.8)		1(1.4)	1(1.0)	2(1.4)	
	Loose	21(17.0)	27(25.0)	27(38.6)	12(13.0)	34(22.2)	26(25.5)
	Flare	4(3.2)	4(3.7)	2(2.9)	1(1.0)	3(1.9)	
디테일	없다	79(63.0)	83(76.9)	63(90.0)	81(88.0)	118(77.2)	87(85.3)
	있다	46(37.0)	25(23.1)	7(10.0)	11(12.0)	35(22.8)	15(14.7)
합 계		125	108	70	92	153	102

이 더 많아서 북경은 서양은 물론 서울보다도 좀 더 넉넉한 데님실루엣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테일에서는 세 도시 모두 장식 없는 심플한 것이 압도적이었다. 그 중에서 서울에서 디테일 양이 가장 많았지만 사용된 디테일은 크게 부각되지 않는 장식선, 지퍼, 주머니 장식, 찢기 등이었다.

색상, 실루엣, 디테일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기본색에 일자형 실루엣, 디테일이 없는 데님팬츠를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경에서는 밝은 색, 넉넉한 실루엣이 다른 곳보다 많았다.

2) F/W

색상에서 서양은 계절의 특성상 어두운 데님색이 가장 많아서 S/S에 가장 많았던 기본 데님색보다 많았으나, 기본 데님색도 여전히 많이 착용하였다. 그러나 밝은 색과 부분발색은 거의 없었다. 서울 역시 어두운 색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기본 데님색이었는데, 어두운 데님색이 서양보다 더 많았다. 북경도 어두운 색과 기본 데님색이 가장 많았으나, S/S와 마

찬가지로 북경 남성들은 다른 곳보다 계절에 구애 받지 않고 밝은 색의 데님을 많이 착용하였다.

실루엣에서 서양은 S/S와 마찬가지로 일자형이 압도적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넉넉한 실루엣을 착용하였으나, 그 외의 실루엣은 거의 착용하지 않았다. 외투를 착용하는 계절의 특성상 일자형 데님의 양이 S/S보다 조금 더 많았다. 서울도 서양과 마찬가지로 일자형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 넉넉한 실루엣이었는데, S/S와 마찬가지로 넉넉한 실루엣의 비율이 서양보다 조금 더 많았다. 북경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나타났는데, 넉넉한 실루엣의 비율이 서울보다 조금 더 많아서 S/S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디테일에서도 S/S와 마찬가지로 모두 없는 것이 압도적이었는데, 그 중에서 서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서울에서 사용된 디테일도 S/S와 거의 동일하였다.

F/W에는 계절의 특성상 모두 어두운 데님색, 일자형 실루엣, 디테일이 없는 팬츠를 가장 많이 착용하였다. 서울은 S/S와 마찬가지로 두 도시보다 디테일이 많았으나, 팬츠의 실루엣이나 모양에 크게 영향을

<표 4> 데님과 코디네이션 하는 상의의 색상과 톤 비교

(단위: 명(%))

유형	계절	S/S			F/W		
		서양	서울	북경	서양	서울	북경
색상	R	18(11.1)	16(13.0)	11(14.9)	9(8.0)	10(5.8)	2(1.7)
	YR	8(4.9)	2(1.6)		3(2.7)	1(0.6)	
	Y	13(7.9)	11(9.0)	3(4.0)	9(8.0)	26(15.0)	14(12.1)
	YG	2(1.2)	2(1.6)			3(1.7)	
	G	11(6.8)	11(9.0)	2(2.7)	8(7.2)	17(9.8)	8(6.9)
	BG	1(0.6)	1(0.8)			2(1.2)	1(0.8)
	B	54(32.69)	26(21.1)	20(27.0)	35(31.3)	53(30.1)	32(27.6)
	BP		1(0.8)			1(0.6)	
	P	2(1.2)		1(1.4)		1(0.6)	1(0.8)
	RP	2(1.2)			3(2.7)	2(1.2)	
	W	34(20.7)	32(26.0)	22(29.7)	9(8.0)	8(4.6)	11(9.5)
	Gr	6(3.6)	10(8.1)	5(6.8)	6(5.3)	6(3.5)	12(10.4)
	BK	13(7.9)	11(9.0)	10(13.5)	30(26.8)	44(25.3)	35(30.2)
합계		164	103	74	112	115	116
톤	P&L	50(30.5)	40(33.9)	16(32.7)	16(14.3)	13(7.5)	15(13.3)
	B&V	48(29.3)	27(22.9)	8(16.3)	15(13.4)	35(20.2)	11(9.7)
	Dp&Dk	38(23.2)	24(20.3)	16(32.7)	65(58.0)	88(50.9)	58(51.3)
	S&D1	18(10.9)	17(14.4)	5(10.2)	10(8.9)	29(16.7)	15(13.3)
	Grayish	10(6.1)	10(8.5)	4(8.1)	6(5.4)	8(4.6)	14(12.4)

주지 않는 장식선, 주머니 장식 등이었다. 북경에서는 S/S와 마찬가지로 밝은 색, 넉넉한 실루엣이 다른 곳보다 많았다.

4. 데넵하의와 코디네이션 하는 상의 디자인 요소 분석

1) 색상, 톤 비교

서울·북경과 서양 남성들의 데넵과 함께 코디네이션 하는 상의의 색상들은 주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알기 위해 계절별로 색상과 톤을 비교하였다(표 4).

(1) S/S

데넵과 착용하는 상의의 색상에서 서양은 파란색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흰색, 빨강색의 순이었다. 서울은 흰색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파란색, 빨강색이었으며, 북경 역시 서울과 마찬가지로 흰색이, 파란색, 빨강색의 순서로 나타났다. 모두 가장 많이 착용하는 색상의 종류는 같았으나, 양에서 약간의 차이를 드러냈다.

남미우(1994)에 의하면 남자 의복에서 색은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일요소로 작용하며, 이주현, 조궁호(1995)는 파란색 의복착용자는 능력 있고, 활동적인 인상을 주고, 빨간색 의복착용자는 화려하고 눈에 띄는 인상을 주며, 검정색 의복착용자는 깔끔하지 않고, 어두운 인상을 준다고 밝힌 이론에 근거해서 볼 때, 서울·북경과 서양 젊은 남성들이 데넵과 착용한 상의의 색상은 모두 흰색, 파란색, 빨강색 등의 세 가지 색상이 가장 많아서 이와 같은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데넵하의는 활동적이면서, 눈에 띄는 색상의 상의와 가장 많이 착용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서양이 가장 다양한 종류의 색상을 착용하였고, 북경에서 가장 적은 종류의 색상이 나타났다. 톤에서 서양은 P&L 톤, B&V 톤이 많았는데, 계절의 특성에 맞게 흰색과 밝고 화려한 톤의 상의를 착용하였다. 그러나 봄에 티셔츠나 셔츠와 함께 착용한 겉옷 때문에 Dp&Dk 톤도 나타났다. 서울도 서양과 마찬가지로 P&L 톤, B&V 톤, Dp&Dk 톤도 나타나 톤의 종류와 양이 거의 유사하였다.

북경은 P&L 톤과 Dp&Dk 톤이 많았는데, 봄·여름이라는 계절의 특성과 다르게 두 도시 보다 밝은 색조는 적고, 모노톤의 색조를 많이 사용하였다.

(2) F/W

색상에서 서양은 S/S와 마찬가지로 파란색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검정색으로서 두 가지 색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서울도 파란색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검정색이 많은 것은 같았으나, 계절의 특성에 맞게 갈색계열의 색이 서양보다 많았다. 북경은 검정색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파란색이었으나, 계절의 특성에 맞는 갈색 계열과 회색, 그리고 흰색도 다른 곳보다 많았다. 모두 파란색과 검정색을 가장 많이 착용하였는데, 서양과 서울은 파란색, 검정색의 순서로, 북경은 검정색, 파란색의 순서로 나타났다. 서울과 북경은 계절색인 갈색 계열이 많았다. 그리고 북경에서는 회색과 흰색도 많았다.

톤에서 서양은 계절에 맞게 Dp&Dk 톤이 가장 많았고, P&L 톤과 B&V 톤은 거의 유사한 양으로서 코트와 재킷 종류는 어두운 색조를, 점퍼 종류는 밝은 색조를 착용하였다. 서울도 Dp&Dk 톤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B&V 톤으로 어두운 색조와 밝고 화려한 색조가 동시에 나타났다. 그러나 서양과는 달리 P&L 톤은 매우 적었던 반면에 S&Dl 톤의 중간 색조를 많이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경도 Dp&Dk 톤이 가장 많은 것은 다른 곳과 같았으나, 겨울에도 흰색을 많이 착용했기 때문에 P&L 톤과 중간 색조의 S&Dl 톤, 회색톤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S/S와 마찬가지로 모노톤을 많이 착용하였다(그림 7, 8, 9).

2) 실루엣과 디테일 분석

서울·북경과 서양 남성들이 팬츠와 함께 코디네이션 하는 상의는 어떤 실루엣과 디테일을 보이는지 알



<그림 7>

<그림 8>

<그림 9>

<그림 7> 2004, 12. 서울. Dp&Dk 톤 상의 착용.
<그림 8> 2004, 10. 북경. 갈색 계열 상의 착용.
<그림 9> 2004, 7. 서양. 파란색 상의 착용.

기 위해 상의의 유형을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1) S/S

서양에서 티셔츠, 셔츠의 실루엣은 피트 실루엣이 매우 많았고, 재킷, 점퍼, 코트 등은 루스 실루엣이 많았으나, 외투의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피트 실루엣도 많아서 서양은 전반적으로 피트 실루엣을 많이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티셔츠, 셔츠, 점퍼, 재킷, 코트 등에서 서양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루스 실루엣을 선호하였다. 북경도 루스 실루엣이 많았는데 티셔츠, 셔츠의 실루엣은 물론, 점퍼, 재킷, 코트 등에 있어서도 서울보다 루스 실루엣이 많았다(그림 10,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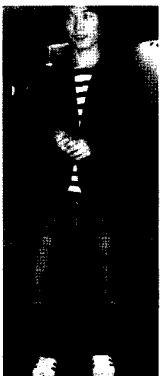
디테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문양으로 기하학적 문양이 직선적이면서 경쾌하고 현대적인 감각

을 줄 뿐 아니라 남성적인 특징을 함께 가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주현, 조궁호(1995)에 의하면 최근에 나타난 남성적인 스트라이프나 체크는 과거와 달리 색상이나 간격 등이 매우 화려해졌다고 하였다. 다음으로는 자연문양 중에서 특히 꽃문양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박영희(2004)는 꽃이라는 여성성을 남성복에 표현한 것으로서 이것은 패션의 양성화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과 같이 상의에 나타난 문양은 서양은 티셔츠, 셔츠에 글자, 스트라이프, 꽃문양 등의 디테일이 있었으며, 점퍼, 재킷, 코트 등은 디테일이 없는 것이 더 많았으나, 트레이닝 점퍼에 삼선 장식, 숫자, 문자, 주머니 장식 등도 있었다. 서울도 티셔츠, 셔츠에

<표 5> 데님과 코디네이션 하는 상의의 실루엣과 디테일 분석

(단위: 명(%))

요 소		계 절	S/S			F/W		
			서 양	서 울	북 경	서 양	서 울	북 경
티셔츠 셔츠 블라우스	실루엣	Fit	72(65.5)	16(20.0)	5(7.4)	12(66.6)	6(37.0)	1(11.0)
		Loose	38(34.5)	64(80.0)	63(92.6)	6(33.4)	10(63.0)	8(89.0)
	디테일	없다	28(25.4)	28(35.0)	20(29.4)	7(38.8)	10(62.5)	4(44.4)
		있다	82(74.6)	52(65.0)	48(70.6)	11(61.2)	6(37.5)	5(55.6)
합 계			110	80	68	18	16	9
Jumper Jacket Vest Coat	실루엣	Fit	7(41.2)	9(21.9)		36(45.0)	32(20.5)	4(4.3)
		Loose	10(58.8)	32(78.1)	23(10.0)	44(55.0)	124(79.5)	88(95.7)
	디테일	없다	9(52.9)	22(53.7)	9(39.1)	56(70.0)	113(72.4)	62(67.4)
		있다	8(47.1)	19(46.3)	14(60.9)	24(30.0)	43(27.6)	30(32.6)
합 계			17	41	23	80	156	92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



<그림 15>

<그림 10> 2004, 10. 서울. 루스 실루엣.
 <그림 11> 2004, 10. 북경. 루스 실루엣.
 <그림 12> 2004, 10. 서양. 피트 실루엣.

<그림 13> 2004, 7. 서울. 꽃문양 셔츠 착용.
 <그림 14> 2004, 10. 북경. 용문양 점퍼 착용.
 <그림 15> 2004, 7. 서양. 꽃문양 셔츠 착용.

서양과 마찬가지로 글자, 스트라이프, 꽃문양 등의 디테일과 재킷, 점퍼, 코트 등의 삼선 장식, 주머니, 지퍼 장식 등도 나타났다. 그러나 역시 디테일이 없는 것이 더 많았다. 북경도 티셔츠, 셔츠에 글자 디테일이 있었다. 그러나 재킷, 점퍼, 코트 등은 두 도시와 달리 자수와 주머니 장식 등의 디테일이 있는 것이 더 많았다(그림 13, 14, 15).

계절의 특성상 점퍼, 재킷, 코트 등의 양이 많지 않아서 실루엣과 디테일의 평가는 유용적일 수 있다.

(2) F/W

서양에서 티셔츠, 셔츠는 여전히 피트 실루엣이 가장 많았다. 점퍼, 재킷, 코트 등은 루스 실루엣이 더 많았으나, 피트 실루엣도 비슷한 양으로 나타나서 서양 남성들은 전체적으로 몸에 잘 맞는 실루엣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티셔츠, 셔츠, 점퍼, 재킷, 코트 등에서 서양보다 넉넉한 실루엣을 주로 착용하였다. 북경은 티셔츠, 셔츠, 점퍼, 재킷, 코트 등 전체적으로 루스 실루엣을 착용하였으며, 서울보다 양이 더 많았다.

디테일에서 서양은 티셔츠, 셔츠에 글자, 그림 등의 디테일이 있었으나, 점퍼, 재킷, 코트 등은 디테일이 없는 심플한 겉옷 종류를 주로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티셔츠, 셔츠에는 디테일이 대부분 없었는데, 이는 외부 종류의 안쪽에 착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점퍼, 재킷, 코트 역시 대부분 디테일이 없어서 서울도 서양과 마찬가지로 겉옷은 심플한 것을 주로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사용한 디테일은 주머니나, 털 장식 등이 있었다. 북경은 티셔츠, 셔츠에 디테일이 있는 것이 더 많았으나, 점퍼, 재킷, 코트 등은 디테일이 없는 것이 더 많아서 다른 곳과 별 차이가 없었다. 계절의 특성상 티셔츠, 셔츠 등은 실루엣, 디테일을 정확히 평가하기에 그 양이 적어서 정확한 평가가 어려웠다.

V. 결 론

동양과 서양의 대도시 남성들의 데님패션 자료를 수집하여 디자인과 코디네이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공통점

1) 모든 도시에서 S/S, F/W 동일하게 남성들은 데

님소재의 의복으로 바지를 가장 많이 착용하였다.

2) 데님바지와 함께 입는 상의의 종류는 S/S, F/W 모두 다양성을 보이고 특히 S/S에는 티셔츠가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었다.

3) 데님바지로서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은 동·서양 모두 일자형 실루엣과 디테일이 없는 단순한 스타일이며 색상은 S/S에는 기본색, F/W에는 어두운 색상을 공통적으로 선호하였다.

4) 데님바지와 착용하는 상의 디자인 가운데 색상이 공통적으로 S/S에는 푸른색과 흰색, F/W에는 푸른색과 검은색의 착용빈도가 높아 푸른색을 동·서양 남성들이 가장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톤은 동·서양 공통적으로 S/S에는 Pale & Light, Bright & Vivid, Deep & Dark 등 여러 톤들이 사용되었으나, F/W에는 Deep & Dark 톤에 대한 선호도가 두드러졌다.

2. 차이점

1) 데님바지의 코디네이션에 있어 선호하는 상의 종류는 계절과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눈에 띄는 차이는 점퍼와 재킷착용에서 두드러져 서양 남성들은 데님바지와 함께 티셔츠와 셔츠가 기본이고 그 위에 재킷을 걸치며 겨울에는 코트와 함께 입는 차림이 많았으며, 보통 점퍼보다는 트레이닝 점퍼를 더 많이 입었다. 이에 비해, 동양 남성들은 S/S와 F/W 모두 서양에 비해 점퍼를 많이 입었으나 F/W에는 다소 달라 서울은 재킷을, 북경은 패딩 점퍼를 비롯한 점퍼 종류를 많이 입었다.

2) 선호하는 데님바지의 디자인과 색상도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여 서양과 서울은 밝은 색상과 품이 넉넉한 루스 실루엣의 착용빈도가 매우 낮는데 비해 북경은 S/S와 F/W 모두 이러한 디자인과 색상을 많이 착용하였다.

3) 데님과 착용하는 상의의 색상에서도 지역과 계절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S/S시즌에 서울과 북경 남성들은 서양에 비해 흰색의 착용빈도가 높았고, F/W에는 북경은 다른 도시들에 비해 회색과 검은색의 빈도가 높은 반면, 서울은 노란색 계열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적인 특성을 나타내었다.

4) 데님과 착용하는 상의의 디자인은 실루엣에서 가장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서양 남성들은 티셔츠와 셔츠에서 대부분 피트되는 실루엣을 착용하였고, 외부 역시 몸에 잘 맞는 실

루엣을 주로 착용하였다. 서울과 북경은 티셔츠와 셔츠, 외투 모두 루스 실루엣을 주로 착용하였는데, 서울의 남성보다 북경의 남성들이 더 넉넉한 실루엣을 보였다.

이와 같이 서양과 서울, 북경의 남성들은 계절에 따라 데님 자체의 형태와 함께 같이 착용하는 상의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착용되었고, 이러한 양식을 통해 동·서양 데님패션 기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볼 수 있었다. 공통점은 데님이라는 의복 자체의 특성과 비슷한 연령대의 공동문화에 의해 형성되었고, 차이점은 각기 고유한 민족적 정서와 생활양식, 패션 트렌드 수용 정도, 의복을 통한 자기표현, 의복에 대한 인식에 따라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전체적 이미지로 살펴 볼 때 데님패션을 오랫동안 접한 서양의 남성들은 좀 더 다양한 스타일로 착용하였다. 캐주얼은 물론 정장풍의 재킷 등을 비롯한 깔끔한 스타일을 착용함으로써 데님패션을 통해 폭넓은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서울의 남성들은 서양과 북경의 중간 정도의 깔끔한 스타일과 캐주얼한 스타일을 연출하였으며, 북경의 남성들은 데님패션을 받아들이는 짧은 기간으로 인해 데님팬츠에 거의 대부분 점퍼 등과 같이 활동적이고 캐주얼한 스타일로 착용함으로써 데님패션은 캐주얼이라는 고정관념에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데님양식에 대한 자기표현의 기호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 서양과 서울, 북경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서양, 서울과 북경의 시내중심 거리에서 발견되는 젊은 남성들의 데님패션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서양은 패션 인터넷 검색과 잡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자료수집의 변인통제가 완벽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결과를 확대해석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대협. (2005). *현대 남성 패션에 표현된 메트로섹슈얼(metrosexual)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경애. (2000). 평가자의 연령과 성별이 직물의 태평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8(10), 133-142.
- 김경애, 이미식, 김정희. (2003). 셀룰라제 처리된 데님직물의 태에 관한 연구 (제3보). *한국의류학회지*, 27(1), 40-48.
- 김미수, 이경희. (1995). 진 의류의 제품지각에 관한 고찰. *한국의류학회지*, 19(1), 23-25.
- 김미영, 이충연. (2000). 1990년대 Jean 광고의 변화. *복식문화연구*, 10(4), 97-98.
- 김선희, 임숙자. (1996). 의복관여에 따른 광고에 대한 태도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2), 298-310.
- 남미우. (1994).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 변인이 남자 착용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영희. (2004). *남성복에 나타난 문양의 감성 이미지와 선호도 분석*, 54(4), 114-118.
- 박혜정, 신은주, 정혜영. (2004). 대학생의 의류쇼평성향과 청바지 구매 시 점포선택. *한국의류학회지*, 28(5), 672-675.
- 서울 패션 디자인 센터 정보자료실. (2004). *남성 해의 스트리트 패션*. 서울: 서울 패션 디자인 센터.
- 우지영. (2005). *20-30대 남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메트로섹슈얼(metrosexual) 성향과 의외관리행동*.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명희. (1997). 셔츠 및 청바지의 상표선택과 소비자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263-275.
- 이미식, 홍문경, 권계화, 전정애. (2001). 청바지의 소재별 쾌적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2), 1196-1199.
- 이민경, 한명숙. (2002). 현대 데님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의 표현양식. *복식문화연구*, 10(4), 743-746.
- 이정숙, 성수광. (2004). 성별에 따른 청바지 착용자의 의복 행동 차이. *한국의류학회지*, 6(3), 453-457.
- 이주현, 조공호. (1995). 의복디자인 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제1보)-의복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5), 747-764.
- 이효진. (2004). 데님의상의의 현대문화사적 분석. *복식*, 54(8), 75-86.
- 전경숙, 김재욱. (1996). 미국산 청바지에 대한 소비자 태도의 비교문화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0(3), 354-357.
- 최경희. (2004). 중국 직장 여성 스트리트 패션 연구. *한중패션산학연구회지*, 6, 16.
- 최현주. (2003). *진 브랜드의 이미지에 대한 소비자 감성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